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154th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3학년도 수완 실전 5회 30~34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동식물이나 다른 사물을 인격화하여 인간의 부도덕한 면이나 치부를 풍자하는 우화 소설은 우리나라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는데,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담아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선 후기 향촌 사회와 향촌민 그리고 그들이 겪는 향촌 사회 내 갈등이 주로 담겨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농민층의 분화와 연관이 있다. 부농과 빈농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는 한편, 새로운 경제 질서 안에서 부를 축적하여 신분적 속박에서 벗어나거나 관직을 얻고자 했던 부농층인 요호 부민의 등장으로 그러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역사적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우화 소설 중에서 송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유형은 재물의 탈취와 뺏김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당대인들의 갈등을 보여 준다. 재물을 축적했다는 이유로 빈민 구제를 하고도 지속적인 요구에 시달리는 요호 부민층에 대한 동정과 이들을 약탈하려는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나타난다. 또한 백성이 양식을 구걸해야 할 정도의 상황에 처한 것이나 양심을 품고 송사를 일으킬 정도로 몰염치한 것 등을 지배층의 문제로 돌려 비판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편 나이 다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유형도 있는데, 주로 나이를 빙자하여 상좌(上座)에 오르기를 욕망하는 인간상과 이를 위해 거짓을 고하는 모습들을 풍자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다. 그리고 기존 질서인 나이를 통해 상좌를 차지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어 가던 선비들의 현실적 처지를 우의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요호 부민층의 성장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몰락한 선비층으로 형상화된 동물이 위엄 없이 구석에서 눈치만 보다가 상좌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 심지어 요호 부민층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막강한 힘을 가진 지배층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뜻에 따라 초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조선 후기 변화된 사회상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

“대개 만물의 경중을 알고자 할진대 저울만 같음이 없고, 송사의 곡직을 알진대 양언(兩言)을 들음만 같음이 없나니, 일편의 말만 듣고 선불선을 가벼이 판결치 못할지라. 소진(蘇秦)의 말로써 진나라를 배반함이 어찌 옳다 하며 장의(張儀)의 말로써 진나라를 섬김이 어찌 그르다 하리오. 소장(訴狀) 양인의 말을 같이 들은 연후에야 종횡을 쾌히 결단하리니, 다람쥐는 우선 옥으로 내리고 서대쥐를 즉각 착래(捉來)하여 상대한 연후에 가히 백변하리라.”

한번 제사하매 오소리와 너구리 두 형졸로 하여금 서대쥐를 빨리 잡아 대령하라 분부하니 두 짐승이 청령하고 나올새 오소리가 너구리더러 일러 왈,

“내 들으니 서대쥐 재물이 많으므로 심히 교만하매 우리 매양 괴악히 알아 버르던 바이러니, 오늘 우리에게 걸렸는지라. ㉠이놈을 잡아 우리를 팔시하던 일을 설분하고 또 소송당한 놈이 피차 예물 바치는 전례는 위에서도 아는 바라. 수백 냥이 아니면 결단코 놓지 말자.”

하고 둘이 서로 약속을 정하고, 호호당당한 기분을 발호하고 예기(銳氣)는 맹렬하여 바로 구궁산 팔괘동에 이르러 토굴 밖에서 여성대호(厲聲大呼)하여 가로되,

“서대쥐 정소(呈訴)를 만나매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패자(牌子)를 가지고 잡으러 왔나니 서대쥐는 빨리 나오고 지체 말라.”

독축이 성화 같은지라. 비복들이 이 말을 듣고 혼백이 비월하여 급급히 들어가서 서대쥐께 연유를 고할새 서대쥐 호흡이 천축하고 한출침배(汗出沾背)*하는지라. 모든 쥐들이 이를 보고 눈을 등글고 두 귀 발록발록하여 황황망조(遑遑罔措)하거늘 서대쥐 왈,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옛말에 일렀으되 칼이 비록 비수라도 죄 없는 사람은 해치지 못한다 하였으니 우리 본디 죄를 범한 바 없는지라 무엇이 두려우리오.”

(중략)

‘이번 송사도 신과 다람쥐 사이에 무도함이 아니라 책재원수(責在元帥)*라. 산군의 교화가 이르지 못함ियो 덕이 무왕을 효측지 못함이라. 신은 구궁산에 거한 지 수년에 조상이 전하온 재물이 수천 금에 지나고 겸하여 요사이 당천자 사급*하옵신 울목이 사만여 주에 지나오니 항상 마음에 과복함을 염려하는 바요, 상하 권술이 매양 무슨 불일이 있어도 출필곡 반필면 하옵거늘 노복종이라도 하일에 무엇이 부족하여 ㉢타인의 양미를 엿보아 도적을 하오리까. 다람쥐는 수십 세를 내려오며 빈한한 것은 천산만학이 중소공지(衆所共知)*요, 성품이 본래 장구지계하는 원려(遠慮)가 없고 다만 ㉣고식지계(姑息之計)*로 어제 거두어 오늘 살고 금일 취하여 내일 지내오며, 또한 가중이 본디 적막하여 휘장삼척(喙長三尺)*에 사벽이 매어늘, 무엇이 넉넉하여 도둑맛을 수십 양미를 어느 겨를에 저축하오리까. 다람쥐가 거년에 애연한 사정을 신더러 말하옵기에 생률백자일이 석을 주어 구활하온 후 금년 신정에 다시 나와 두 번 와 사정하오나 마침 신의 집에 용도가 많아서 그 청을 들어주지 못하였더니, 그로 환원하와 보은함은 생각지 않고 이같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니 어찌 억울치 않사오리까. 증공의 글에 일렀으되 도적이 증거를 밝혀야 도적에게도 도리어 복을 주게 된다고 하였으며, 옛날 한 태조는 진나라를 멸하고 함양에 들어가 포로와 더불어 삼장법(三章法)을 언약할 제 살인자는 사(死)하고 상인자와 도적은 죄로 다스리기로 국법을 밝혔사오니, 원컨대 산군은 진상을 명찰하신 후에 만일 신이 도적에 나타나는 형상이 분명하올진대 쾌히 신을 명정기죄(明正基罪)*하와 일후 다른 짐승으로 하여금 징계하시고, 산군도 덕화를 멀리 베푸지 못하사 교화 널리 흐르지 못하므로 이런 송사가 생기는 것이오면 스스로 탄식만 하옵시고 신등의 쟁송함을 그르다 마옵소서.’

백호산군이 서대취의 소지를 본 후 말이 없더니, 이윽고 제사를 불렀다.

- 작자 미상, 「서동지전」

- *한출첨배: 몹시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심.
- *책재원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음.
- *사급: 나라나 관청에서 금품을 내려 줌.
- *중소공지: 못사람들이 모두 아는 일.
- *고식지계: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피나 방법.
- *훼장삼척: 허물이 드러나서 숨기어 감출 수가 없음.
- *명정기죄: 명백하게 그 죄명을 집어냄.

(다)

장 선생 말손자가 여쭙되,
 “우리 집에 경연(慶宴)을 배설하오매 각처 손님을 청하려니와 만일 백호산군을 청치 않으면 후일에 필경 화가 될 듯하오니 어찌하오리까.”
 장 선생이 눈을 감고 오래 생각을 하다가 이르되,
 “백호산군은 힘만 믿고 사나와 친구를 모르고, 몇 해 전 네 형을 해하려고 급히 쫓아오니 네 형이 뛰기를 잘못하였던들 아마 죽을 뻔하였다. 그러므로 내 집에 혐의 있고, 또한 산군이 좌석에 참례하면 각처 손님이 필경 황겁하여 잘 놀지 못할 것이니 청치 않음이 당하도다.”
 이때 이화 도화 만발하고 왜철쭉 두견화가 새로이 피었고 각색 방초(芳草)는 드리웠으니 만학천봉에 춘홍이 가득하여 경계 절승(景概絶勝)한지라. 주인 장 선생이 연석을 배설할새, 구름으로 차일 삼고 산세로 병풍 삼고 잔디로 포진하고, 장 선생은 갈건야 복(葛巾野服)으로 손님을 기다리더니 동서남북으로 짐승 손님이 들어올 제, 빨 긴 사슴과 요망한 토끼며 승냥이며 방정맞은 잔나비며 요괴로운 여우며 어롱더롱 두꺼비며 거친 고슴도치며 빛 좋은 오소리며 만신이 미련한 두더지며 어이없는 수달피 등 동물이 앞서며 뒤서며 펄펄 뛰며 문이 메어지게 들어오니, 주인은 동계(東階)에 읍하고 객은 서계(西階)에 올라 상좌를 다투어 ㉠좌차(座次)*를 결단치 못하여 분분 난잡하니 주인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두꺼비는 원래 위엄이 없는지라 분요(紛擾)* 중에 아무 말도 못 하고 가슴을 벌럭이며 영금 영금 기어 한 모퉁이에 엎드려 거동만 보더니, 그중에 토끼란 놈이 깡충 뛰어 내달라 눈을 깜짝이며 말하되,

“모든 손님은 흰화(暄譁)치 말고 내 말을 잠간 들어 보소.”
 노루가 대답하되,
 “무슨 말씀입니까.”
 토끼 왈,

[B] “오늘 모꼬지에 조용히 좌를 정하여 예법을 정할 것이어늘, 한갓 요란하고 무례하니 우리 모꼬진들 해연치 않으랴.”
 노루란 놈이 턱을 끄덕이며 웃어 왈,
 “말씀이 가장 유리하니 원컨대 선생은 좋은 도리를 가르쳐 좌정케 하소서.”

토끼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가로되,
 “내 일찍 들으니 조정(朝廷)엔 막여작이요 향당(鄉黨)엔 막여치라* 하오니 부질없이 다투지 말고 연치(年齒)를 따라 좌를 정하소서.”
 노루가 허리를 수그리고 펄쩍 뛰어 내달아 왈,
 “㉡내가 나이 많아 허리가 굽었노라. 상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하고, 암탉의 걸음으로 영금영금 기어 상좌에 앉으니, 여우란 놈이 생각하되,
 ‘한갓 허리 굽은 것으로서 나이 많은 체하고 상좌에 앉으니 낸 들 어찌 무슨 관계로 나이 많은 체 못 하리오.’
 하고 나뭇을 쓰다듬으며,
 “내 나이 많아서 나뭇이 세었노라.”
 노루 답 왈,
 “네 나이 많다 하니 어느 갑자에 났느냐, 호패를 올리라.”
 하니 여우 답 왈,
 “소년 시절에 호협(豪俠)하여 주사청루에 다닐 적에 술이 대취하여 오다가 ㉢대신 가시는 길을 건넜다 하여 호패를 빼앗겨 이때까지 찾지 못하였거니와, 천지개벽한 후 처음에 황하수(黃河水) 치던 시절에 나더러 힘세다고 가래장부 되었으니 내 나이 많지 않으리오. 나는 이렇거니와 너는 어느 갑자에 났느냐.”
 노루 답 왈,
 “천지개벽하고 하늘에 별 박을 때 나더러 궁통(窮通)하다 하여 별자리를 분간하여 도수를 정하였으니 내 나이 많지 않으리오.”
 하고 둘이 상좌를 다투거늘 두꺼비 곁에 엎드렸다가 생각하되,
 ‘저놈들이 서로 거짓말로 나이 많은 체하니 낸들 거짓말 못 하리오.’

- 작자 미상, 「두껍전」

- *좌차: 좌석의 차례.
- *분요: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움.
- *조정엔 막여작이요 향당엔 막여치라: 조정에서는 벼슬이 제일이고 향당에선 나이가 제일임

30. (나)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대취’의 비복들은 ‘서대취’를 잡으러 왔다는 말에 혼비백산했다.
- ② ‘오소리’와 ‘너구리’는 ‘서대취’에게 받을 예물의 정도를 서로 약조했다.
- ③ ‘서대취’는 ‘당천자’에게 받은 재물들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집안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 ④ ‘서대취’는 억울한 송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백호산군’이 덕화를 널리 베풀지 못한 탓이 있다고 보았다.
- ⑤ ‘서대취’는 ‘산군’에게 진상을 따져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후에도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잘못을 벌하라고 이야기했다.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들이 '서대쥐'와 관계가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 ② ㉡: 두려운 마음을 이겨 내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말이다.
- ③ ㉢: 자신에게 송사를 건 '다람쥐'의 성품과 그로 인해 '다람쥐'가 도적질을 당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말이다.
- ④ ㉣: 자신의 외양을 근거로 자신이 상좌(上座)에 앉아야 하는 이유를 대는 말이다.
- ⑤ ㉤: 자신이 상대가 요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꾸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다.

32.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다람쥐'가 흠친 것이고, ㉢은 '장 선생'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 ② ㉠은 '형졸'들이 '서대쥐'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은 '장 선생'이 경연을 연 원인이다.
- ③ ㉠은 '서대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은 '여우'가 '노루'에게 거짓을 말하게 되는 원인이다.
- ④ ㉠은 '다람쥐'가 잃어버린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고, ㉢은 '토끼'가 나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문제이다.
- ⑤ ㉠은 '다람쥐'를 옥으로 내리게 된 원인이고, ㉢은 '노루'와 '두꺼비'가 말다툼을 하게 되는 원인이다.

3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송사를 판단하는 인물의 신중한 면모가 드러난다.
- ② [B]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③ [A]는 [B]와 달리 앞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측하는 말하기가 나타난다.
- ④ [B]는 [A]와 달리 문제의 진상 파악을 위해 상대방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34.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다람쥐'가 두 번이나 '서대쥐'를 찾아와 사정한 것을 보아 '서대쥐'를 조선 후기 부농으로 '다람쥐'를 빈농으로 설정한 것이겠군.
- ② (나)에서 '다람쥐'가 '서대쥐'에게 구제를 거절당하자 송사를 건 것으로 볼 때, 재물의 탈취와 빼김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벌어진 갈등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③ (다)에서 '토끼'가 '부질없이 다투지 말고 연치를 따라 좌를 정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토끼'를 기존의 사회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된 사회상을 드러내는 인물로 설정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서대쥐'가 '백호산군'의 '교화가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과 (다)에서 '백호산군이 힘만 믿고 사나와 친구를 모르며, 초대를 할 경우 '각처 손님'이 놀지 못할 것이니 청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나)에서 '서대쥐'가 '다람쥐'의 '애연한 사정'을 듣고 구활한 적이 있음에도 '서대쥐'가 다시 '다람쥐'에게 구활해 달라고 부탁을 받는 것과 (다)에서 '두꺼비'가 '위엄'이 없이 '가슴을 벌럭이며 영금영금 기어'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은 각각 조선 후기 사회의 요호 부민층과 몰락한 선비층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겠군.